

쓰지 못한 기사의 제보자에게 늦은 밤 전화가 왔다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은 씨는 부당해고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기회도 없었다.

2024년 2월 어느 토요일 늦은 밤이었다. 11시도 넘어 잠을 청하려 할 때 휴대전화가 진동음을 냈다. 펄쩍 짜증이 밀려왔다. 토요일, 밤 11시. 아무리 기자라지만 이렇게 야밤에 전화하는 것은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휴대전화 액정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잠이 달아났다.

#은○○(가명)

기자들은 의례 그렇겠지만 번호를 잘 지우지 않는다. 뜻밖의 인연이 단박의 보도로 이어지는 일이 왕왕 있어서다. 은 아무개 씨는 3년 전 제보자였다. 그는 3년

전 직장내 괴롭힘과 장애인 차별, 부당한 채용거부 등 다양한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기사를 찾았다.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짧은 사이 그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흘렀고 기억의 종착지는 짙은 아쉬움과 미안함이었다. 끝내 그의 사연은 보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보도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 같다.

토요일, 밤 11시, 그리고 은 씨. 쉽사리 연결되지 않는 세 개의 극점은 통화수락으로 향하는 손가락을 그물처럼 감싸 더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전화는 진동을 멈췄다. 앗.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이번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는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있지 않았다. 약간의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장애보다 더 많은 장애를 경험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주말 늦은 밤 기자에게 전화했다...?’ 어쩔 줄 모르는 마음에 급하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저 그가 통화목록을 혹은 통화상대를 잘못 눌렀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저 민망하면 될 일이다. 마음이 쿵다쿵다 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걸었던 전화라면 어떡하지. 다행히 통화가 됐다.

“안녕하세요,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은 아무개 씨 맞으시죠?”

넉 달 전의 기억이라 인사말이 정확히 같았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나는 안도하며 그에게 안부를 물었고, 그는 내가 그를 기억하는 것을 놀라워했다. 그는 나를 지목해 전화를 한 것이 맞다고 했다. 자신을 기억하냐고 묻기에 기자들은 통상 번호를 지우지 않는다고 말해줬다. 나는 내심 그가 많은 상처 속에 안타까운 환경에 있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다. 잘못 건 것도, 상처 끝에 안 좋은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술에 취했을 뿐이었다. 그는 시험에 합격했노라 말했고, 나는 축하를 건넸다. 쓰지 못한 기사, 그리고 담지 못한 말들의 기억과 함께.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맙다.

꽤 우쭐했다

2021년. 은 씨와의 이야기는 몇 달에 걸친 것이었다. 최초 그는 몇 번의 언론 제보 끝에 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것은 자신의 대기업 인턴십 경험을 담은 것이었다. 그는 사소한 장애를 이유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겪었고 정규직 전환도 불발됐다고 적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진술은 일관됐다. 믿음이 갔다. 그래서 대면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했다. 돌아온 반응은 의외였다. “정말요?”

그는 이미 많은 언론에 거절당했다고 했다. 사연이 작아서, 화제성이 덜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결과보다 품이 많이 들어서.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장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 대목이 가장 아렸다.

나는 만나기 전 이것저것 꼬치꼬치 먼저 캐물었다. 특히 시간과 장소와 순서가 중요했다.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 조각을 맞춰야 하니 자주 물었던 것 같다. 문자로도, 전화로도 그랬다. 은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료를 만들어 보냈고 설명했다. 기사가 되겠느냐고 반복해 묻기도 했다. 나는 자신했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윤곽이 눈에 들어올 무렵 그에게 만나자고 했다. 나는 그의 욕성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는 인쇄물로 작성된 자료를 설명하고 싶다며 반



늦은 밤 제보자에게 걸려 온 전화에 늦익은 번호가 찍혀 있었다.

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 만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만나자고 한 사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처음이에요”

꽤 우쭐했다. 이미 앞서 ‘스포’ 했듯이 나는 이 기사를 쓰지 못했는데 그때는 그런 운명(?)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쭐했다. 역시 나는 작은 제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다고 이른바 ‘뽕’이 찼다. 그러나 보도하

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가짐이다.

을지로 어느 카페에서 만난 은 씨는 자신이 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회사로부터, 그리고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또 계속 일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의 회사는 장애인을 계속 고용해왔던 회사였고 그래서 그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도 컸다. 장애

인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 회사는 꽤 오래 정부의 보조금도 타왔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상황에서 은 씨가 정규직이 되지 않을 이유는 주관적으로 보였고, 그가 정규직이 돼야 할 이유는 객관적으로 보였다. 즉, 부당했다.

거듭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아예 쓰지 못한 것은 아니다. 회사에도 연락했고 몇 번의 초고도 적었다. 복사용지에 볼펜으로 꺾꺾 눌러 리드와 개요도 잡아봤고, 허름한 노트북 안 하얀 백지에 몇 십 줄을 썼다 지우기도 했다. 왜 결국 보도되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가 어느 순간 보도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한다. 한편 그는 내가 기사를 쓰기 싫어한다고 느꼈다고 한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동시에 민망하게 답할 수 있었다. “은 씨를 기억합니다”라고.

그는 다행히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다고.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해 일을 시작했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날, 그 밤은 그가 치른 시험에 좋은 성과를 낸 것을 기념

해 괜찮은 곳에서 술을 한잔 걸쳤던 날이었다. 축하주였던 셈이다.

그는 전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 힘들었고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이 상처도 됐지만 그래도 만나자고 해준 기자는 기자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당신의 기사를 쓰지 못한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는 또 말했다.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어려웠고 기댈 곳이 없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기자님 덕분에 용기를 얻기도 했어요. 지금은 준비했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답했다. “술을 한잔 하셨나 봐요” 다소 민망하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맞아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기자님 건강하고 꼭 잘 지내세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던 것 같다. “기사를 결국 쓰지 못했는데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를 듣고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게 제 일이니 해야 할 일을 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기사를 보도하지 못했으니 도움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제가 보인 대응이 결과적으로 은 아무개 씨에게 상처가 됐을 것이란 생각도 들어서 미안합니다.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자신을 낮춰보거나 자

존감이 낮아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사를 보도했어야 함에도 보도하지 못했던 것은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나는 말하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고민했다. 지금도 잘 모르겠다. 통화는 서로의 건승을 기원하며 끝났다. 그와의 통화는 16분 59초간 이어졌다. 그 대화가 모두 기억나진 않지만 마음이 따뜻했고, 너무도 미안했다.

이따금 그 대화를, 그리고 은 씨를 떠

올린다. 그는 장애에도, 장해에도, 사연을 보도하지 못한 미련한 기자와의 경험에서도 스스로를 지켰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어느덧 보도 못한 자책마저 잊고 산 기사를 그래도 괜찮다고 용서했다. 고맙았다. 2월 그날 그 늦은 밤, 그는 불과 하진 않았지만 3년 전 딱 한 번 만났던 기자가 생각나 전화를 걸 정도로는 취했고, 그래서 걸었다. 술이 준 용기였을까. 그 술 그리고 용기 모두에 감사하다. 물론 그에게도. 🍷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